

목포, 원스톱 관리로 치매예방 전력

만 60세 이상 무료 치매 조기검진
경로당 방문 주1회 예방교실 운영
치매 파트너 양성 인식 개선 노력도

목포시가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목포 만들기 실현을 위해 원스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치매환자 뿐 아니라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치매 걱정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치매 조기검진은 치매 진단 뿐만 아니라 매년 기억력이 저하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기억력 감퇴가 시작되는 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자에게 조기검진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복지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치매선별검사(CIST)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주2회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협약병원인 목포시의료원과 세안병원의 연계로 정밀검별검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치매치료가 필요한 경우

라면 소득기준없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치매 조기검진 이외에도 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활동 참여가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치매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발병 시기를 늦추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경증치매환자 대상 '쉼터프로그램',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교실', 인지저하자 대상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 등을 12월 초까지 진행한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60세이상 어르신을 위해 관내 3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1회 총 8회에 걸쳐 찾아가는 치매예방 교실을 운

영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치매 예방수칙 교육 및 치매에 대해 바로알기 등 치매환자의 증상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예방 교육과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훈련을 제공한다.

시는 목원동과 유달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안심마을을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 주택 소방시설 점검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생활안전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속적인 치매파트너 양성소와 치매안심가맹점 7개소, 치매극복선도학교(해인여고), 치매극복선도도서관(목포시립도서관)을 지정하는 등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진단 시 조호물품 제공과 지문등록서비스, 실종예방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치매극복 한마음 건강걷기와 치매 극복주간 행사를 시행해 치매

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목포시의 치매예방 정책은 목포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지역 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들을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목포시치매안심센터는 기존의 치매상담센터 업무를 확대 실시해 소득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예방부터 상담, 조기검진, 환자관리까지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해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치매 걱정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고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해남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매일시장 야시장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해남군 제공

‘북적북적’ 해남 매일시장 야시장 성료

라디오 부스 운영·경품 추첨 등
시장 상인 직접 기획·운영 눈길

해남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매일시장 야시장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매일시장 털어볼까'라는 주제로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는 시장내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 부스 운영, 경품 추첨 이벤

트 등이 다양하게 열렸다.

특히 매일시장의 명물 먹거리인 통닭과 튀김, 분식, 국화빵 뿐 아니라 각 상점별로 취급하는 재료를 이용해 전과 과일·아채 묶음, 족발, 낙지, 화무집 등 안주거리를 판매하고, 어린이 솜사탕 기계까지 운영되면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저녁 내내 북적이는 특별한 광경이 연출됐다.

상가 중앙통로에 마련된 탁자들은 일찌감치 만석이 돼 준비된 재료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상인들도 난생처음 겪어보는 손님들의 물결에

환박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또한 먹거리 판매 외에도 보이는 라디오 DJ 부스 운영과 즉석 피아노, 색소폰 연주자 어우러져 밤 나들이를 나온 군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매일시장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을 준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야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줘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 군은 오는 6월 9일과 23일, 7월 7일과 21일 4차례에 걸쳐 야시장을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신안, 태양광 산업 활성화 '쟁걸음'

신안태양광산업협회 발대식
지역발전·일자리 창출 기대

(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영암 현대호텔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장단, 태양광 분야 업계 및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는 탐선, 비금주민태양광발전, SK E&S, KCH, SMRE, 빛솔에너지, 탑솔라 등 상업발전을 하는 9개사와 일반회원사(한국수력원자력, 탐인프라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신안군 태양광 산업 육성 정책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태양광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의 공유제로 햇빛·바람 연계를 지급해 오고 있는 등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에서 소외된 18세 미만 지역 아동들 2,000여 명에게 '햇빛아동수당'을 40만 원씩 지급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깨끗한 물 공급”...강진, 노후상수도관 세척

강진군이 올해 초부터 발생한 읍내 탁수를 바로잡기 위해 상수도관 세척 작업을 진행했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탁수 유발 주요 구간으로 추정되는 강진경찰서 앞-서성리 회전교차로 구간 900m의 노후 상수도관을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상가, 식당 등의 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에 작업을 진행하고 아파트와 주택가에는 사전에 전단지, 플래카드, 전광판 안내를 통해 단수를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세척 작업은 노후 상수도관에 고압 기체를 분사해 배관에 흐르는 물과 기체의 압력으로

이물질이나 물때 등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압축 공기 세척 공법'이 사용됐다.

그 결과 물의 평균 탁도가 0.23NTU에서 0.17NTU로, 맑간은 0.014mg에서 0.004mg으로 개선됐다.

군은 세척 후에도 소화전 이토(퇴수), 실시간 현장 수질 모니터링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탁수 발생을 예방하고, 급수공사대행사,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에 비상대책반을 편성하는 한편, 관 세척에 따른 일시적 탁수 발생을 신속히 대처해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정상 공급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남약사랑 포럼,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무안남약사랑 포럼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향읍 지산마을 김경숙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도농상생운동 확산을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활동에는 회원 20여 명이 참여 양파 수

확 및 자른기, 고구마 식재 등 농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회원은 "농촌과 농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심은 고구마는 가을에 도시민 어린이들에게 수확 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강진, 라탄공예 기초교육과정 수료식

강진군농어촌개발추진단(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작천면 금가내 복합문화센터에서 라탄공예(등공예) 기초교육과정 수료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급과정으로 4월 28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15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라탄 공예 교육은 등공예를 전반적

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기술을 익혀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김승식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은 "교육을 통해 단순한 등공예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 수료 후 개인 작품 활동 뿐 아니라 지역 자원을 소재로 라탄 공예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신안, 초등학교 뉴질랜드 어학연수 추진

신안군이 4년 만에 초등학교 30명을 선발해 한 달 일정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된 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ESOL(영어집중 프로그램), 현장학습 및 체험학습, 홈스테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지난 2008년부터 학생 1인당 750만원의 경비를 지원해 253명의 학생들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교육이 살아야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에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